

광주 FC

부산전 승리 주역 4인방



임선영

이종민

김호남

제종현

클래식 광주 태풍 '4개의 눈'

‘부상 투혼’ 임선영, 생일 자축포
‘명품 프리킥’ 이종민 1골 1도움
‘미완의 대기’ 김호남 골잡이 우뚝
실점후 페널티킥 호수비 제종현

광주 FC의 바람이 얼마나 거셀지 궁금했던 무대였다. 상대적으로 약체로 꼽히는 인천, 대전을 상대로 했던 1승1무였다. 부산전 3-2승리는 그래서 더 극적이었다.

생일 자축포의 임선영, 명품 프리킥의 이종민, 결승골의 김호남, 페널티킥을 막아낸 골키퍼 제종현. 부산전에는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주장 임선영(27)에게는 웬지 기분 좋은 날이었다. 자신의 생일날 다시 찾은 부산이었다. 2012년 3월24일 임선영은 프로 데뷔골을 부산 원정에서 기록했다.

발목에 테이핑을 하고 부상 투혼을 했던 이날 임선영은 “형이 오늘 공을 넣을 것 같다”던 김수범의 말처럼 데뷔골을 넣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찾은 부산에서 임선영은 시즌 첫 골이자 클래식 복귀 골을 터뜨렸다.

임선영은 “경기 전에 공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선제골의 주인공으로 환호를 받았지만 동료들은 내심 임선영을 걱정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주사까지 맞고 그라운드에서 섰던 임선영이다.

1골1도움을 올린 이종민(33)은 남다른 프리킥 실력으로 서울, 수원, 울산 등 빅클럽에서 4차례 우승을 한 베테랑이다. 그는 지난해 스스로 헬린지 무대로 내려왔다. 많은 경기를 뛰고 싶었던 그는 어려운 선택을 했고, 어느새 광주의 빼어난 수 없는 선수가 됐다.

이날 임선영의 선제골을 도운 그는 명품 프리킥으로 골까지 넣으며 세 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종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알리고 싶었던 그는 화려하게 클래식 무대로 돌아왔다.

이종민은 “우리는 여전히 지난해처럼 간절함

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했다”며 “부산전이 사실상 클래식 첫선이라고 생각했다. 중상위권으로 가느냐, 하위권으로 가느냐가 걸린 시험무대였는데 좋은 경기를 해서 기쁘다”고 웃었다.

미완의 대기였던 김호남은 광주를 대표하는 골잡이로 우뚝 섰다. 경남과의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승격에 쐬기를 박았던 그는 매섭게 골문으로 돌진하며 상대를 흔들고 있다. 대전전에서 1골1도움으로 2라운드 MVP에 등극했던 그는 후반 40분 결승골을 넣었다. 파비오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진을 끌어낸 그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며 침착하게 골대를 겨냥했다.

김호남(26)은 “상대가 1대1 상황을 좋아하는 걸 알고 커버를 했다.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끌고 나왔다. 1대1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을

하듯이 편하게 쳤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기뻐했다.

김호남은 2-2로 전반이 끝난 뒤 풀이 죽어있던 제종현에게 “형이 꼭 공을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경기가 끝난 후 광주 선수들의 얼굴은 승리의 기쁨으로 상기 됐다. 그러나 수문장 제종현(24)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후반 40분 웨슬리의 페널티킥을 막으며 승리를 지켰지만 미안함이 큰 경기였다.

제종현은 “전반에 내가 실수를 해서 실점을 했다. 무조건 막자는 생각이었고, 그쪽으로 뛰려고 마음을 먹었다. 형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동료애와 절박함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든 광주 FC, 그들이 쓰는 감동의 드라마는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효주, 시즌 첫 승

LPGA 파운더스컵 21언더

한국선수·교포 올 6개 대회 싹쓸이

김효주(20·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2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5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18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5시즌 LPGA 투어 정회원인 김효주는 올해 세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다.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가 우승하면서 올해 열린 LPGA 투어 6개 대회를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교포 선수들이 모두 휩쓸었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코츠 챔피언십 최나연(28·SK텔레콤)을 시작으로 퓨어실크-버하마 클래식 김세영(22·미래에셋), 호주여자오픈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혼다 타이랜드 양희영(26), HSBC 챔피언십 박인비(27·KB금융그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김효주는 10번 홀(파4) 보기로 루이스에게 1타 차 추격을 허용했으나 11번 홀(파5)부터 3개 홀 연속 버디를 낚아 한숨을 돌렸다.

특히 12번 홀(파4)에서 약 10m 가까운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루이스 역시 12, 13번 홀(파4) 연속 버디로 우승하며 2타 차를 유지했다. 세계 랭킹 1위 출신 루이스는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해 김효주를 1타 차로 압박했고 승부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갈리게 됐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마지막 홀에서 웃은 쪽은 김효주였다. 김효주는 두 번째 샷을 홀 약 3m 거리에 붙인 반면 루이스의 두 번째 샷은 홀 6m 정도 거리에 떨어지면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루이스가 버디 퍼트를 넣고 김효주의 버디 퍼트가 빛나기야 동타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먼저 루이스의 버디 퍼트가 빛나기 편한 마음으로 버디 퍼트에 나선 김효주는 마지막 홀에서도 1타를 줄이며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다. /연합뉴스



“목표는 하나”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학동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행사에서 각 팀 감독들이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 류중일 감독, 넥센 염경엽 감독, NC 김경문 감독, KIA 김기태 감독, 한화 김성근 감독, 롯데 이종운 감독, 두산 김태형 감독, SK 김용희 감독, LG 양상문 감독, KT 조범현 감독.

양현종 vs 소사 시작은 '부상자 명단'

프로야구 미디어데이…KIA-LG 28일 개막전 선발 발표

류현진, 어깨통증 정밀검진 위해 LA로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LG 소사를 맞아 2015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2015 KBO 미디어데이&팬페스트 행사가 23일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열렸다. KIA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10개 구단 사령탑과 이범호·양현종 등 각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리였다.

고향팀 사령탑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 김기태 감독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 다음 시즌 미디어데이에서는 (순위대로 앉는 좌석에서) 더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와의 시즌 개막전 선발로 양현종의 이름을 호명했다. LG의 양상문 감독이 개막전 선발로 소사를 소개하면서 KIA의 2015시즌 첫 경기는 양현종과 소사의 맞대결이 됐다.

팀의 첫 경기를 책임지게 된 좌완 에이스 양현종은 “작년을 생각하면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열심히 하고, 즐기는 야구, 신나는 야구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시즌을 맞는 소감을 언급했다.

양현종은 이날 감독들이 뽑은 ‘탐나는 선수’로 가장 많은 표를 받기도 했다.

넥센 염경엽, SK 김용희, 두산 김태형, LG 양상문, 롯데 이종운 감독은 “탐나는 선수”로 양현종을 언급했다.

양현종의 스승인 kt 조범현 감독도 “열심히 잘 했다.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대단하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며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양현종을 ‘탐나는 선수’로 꼽았다.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의 보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기태 감독은 윤석민의 보직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선발과 마무리 어느 한쪽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김기태 감독은 “모든 분들께서 궁금할 거라 생각하고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시범경기가 끝난 뒤 광주에 내려가지를 못했다. 내일 오전 중에 자리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 팀이 강해지는 게 목표다. 팬 여러분에게도 흥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 하고 있다. 프로야구가 강해질 수 있고, 흥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하겠다”며 윤석민의 보직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주장으로 행사에 참가한 이범호는 “선수들과 준비 잘 한만큼 내년에는 앞에 앉아서 팬들의 성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올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어깨 통증 재발로 정밀검진을 받는다. 자칫 재활이 길어질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다저스 스프링캠프지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벌백 랜지에서 훈련하던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해 다저스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와 만날 예정이다.

MLB닷컴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이 왼 어깨에 코티손 주사(cortisone injection)를 맞은 후 4일 만에 캐치볼을 했다”고 전했다.

처음엔 단순한 훈련 소식만 전해졌지만, 류현진이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나눈 뒤 상황이 급변했다. LA타임스와 CBS스포츠는 “류현진이 캐치볼 후 어깨에 다시 통증을 느꼈다. 다저스는 류현진을 LA로 보내 상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현진은 이날 30여 개의 공을 던지며 어깨 상태를 점검했다. 18일 시범경기 두 번째 실전 등판을 한 류현진은 다음날 통증을 느꼈고,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코티손 주사를 맞았다. 주사 치료 후 3일을 쉬고 4일째 공을 다시 잡기로 한 류현진은 예정대로 23일 캐치볼을 했다. 통증이 줄어들면 캐치볼 수와 거리를 늘려나가며 어깨를 단련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류



현진은 통증을 느꼈고, 훈련을 중단했다. 훈련보다는 정밀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류현진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꼈을 때, 일반적으로 3주 정도 재활을 하고 복귀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즌을 시작하기 전이고 정밀검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복귀 시점을 짐작하기 어렵다. /연합뉴스